



한국에서 쌀 산업의 의의와 가치

■ 심재성/백제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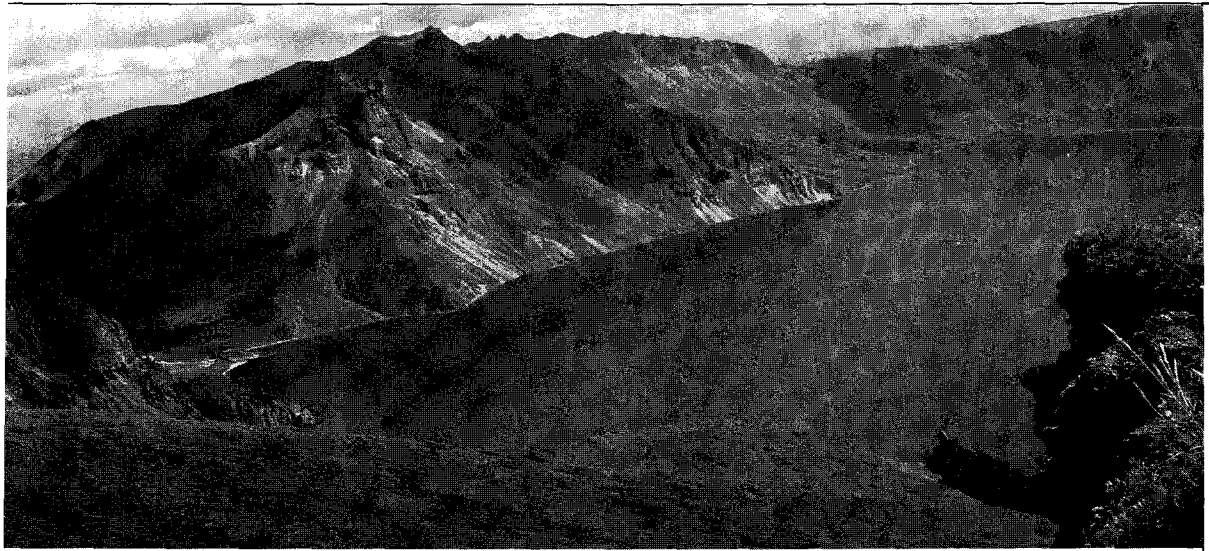
너무나도 긴 학습기간

최근 국회에서 칠레와의 FTA 안이 통과 되었을 때 많은 농업인들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그 옛날 보릿고개를 건디지 못해 먹을 것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던 아낙의 고달픈 삶의 눈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연의 절대적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산업종사자에게 경제논리의 잣대는 너무나 가혹하다. 아무리 시설이 잘 된 농토라 해도 기상 조건이 적절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당해의 안전농사는 담보하지 못한다. 자연의 행태, 즉 비가 적게 오고 많이 오고 춥고 더움이 경제논리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 싸워야 하는 농업인에게 또 다른 잣대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정책입안자들이나 경제에 통달되어있는 사람들의 이론은 한 치도 그림이 없다.

가마당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쌀을 16만원 씩이나 주고 사먹는 사람은 바보중의 바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그런 따위의 말 등등...

그건 경제이론가들의 주장만이 아니다. 사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기초식량가격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는 값이 좀 오른다 싶으면 즉시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물가상승을 누그러뜨리려고 안간 힘을 쓴다. 그러나 땀질식으로 물가를 잡으려 하다보니 결국 농산물무역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고 수입억제니 제한이니 하는 정책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신 모처럼 가격의 오름으로 해서 소득을 보전하려던 농업인들로서는 찬 얼음물을 뒤집어쓴 격이 되어 농가부채라는 헤어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칠레를 상대로 한 FTA가 과일농가나 일부 채소농가에는 타격을 줄지 모르나 쌀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나?” 국회의사당 앞에서 처절하게 데모를 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던 한 이웃의 의아해하는 질문이었다. 한 날 한시도 조용한 때가 별로 없었고, 국회의원들까지 투표하기를 주저하는 희귀한 일까지 치러야했던 농산물 수입개방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곧 이어 닥칠 또 다른 무역협상테이블에서의 난제들이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을 초토화시킬지도 모르는 기막힌 현실을 이들은 알 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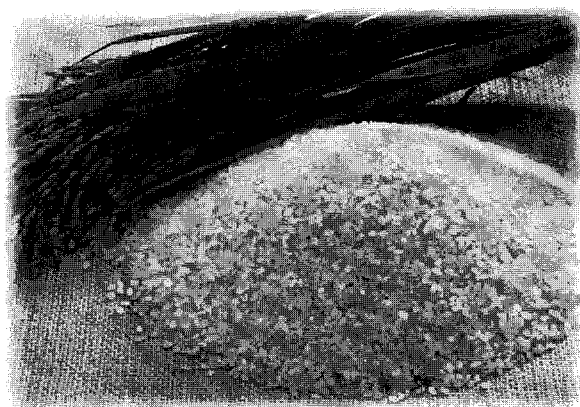
그 동안의 언론들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지연되면서 순박하기 이를 데 없는 농업인과 소비자들을 상대로 간담을 서늘케 하는 위협적인 기사를 마구 써댔다. 서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실을 다져가며 협상상대선정조차 신중을 기하는 여유까지 보이고 있는 일본을 보고 있자면 우리는 도대체 언

제쯤 가서야 선진기법으로 무역을 하고 협상을 하는 날이 도래할 것인지 아득하기만 하다.

해외서 발표되는 각종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식량에 관한 문제는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우선 우리를 위해 만들어지는 듯이 착각되는 중립종 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002/03년도 쌀 생산량은 2001/02보다 3.9% 줄어든 3억8천93만톤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미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3.5% 감소될 것이라는 수치가 그 근거다. 이와 더불어 세계 쌀 기말재고량도 전년 대비 20%가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결국 수입해야 할 쌀도 돈만 주면 언제든지 마음 놓고 수입해 올 수 있다는 통념을 깨뜨리는 요인들이다.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쌀은 분명 노력을 많이 요한다. 노력에 비



‘자연의 섭리’ 경제논리로 설명 안돼, ‘돈=수입가능’ 통념 위험 ‘고귀한 쌀’ 세끼 식사에 초점 곤란, ‘쌀과의 이별’ 못함은 철학 때문

해 재화로 환산되는 경제가치도 별로 높지 않다. 그러나 무형적 가치는 수치화 할 수 없을 만큼으로 크다. 사람 열여덟(禾)명이 작업과정 여든여덟(米)번을 거쳐 만들어진 결실이 곧 쌀이다. 하나의 공장에서 일괄공정으로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가마당 10만5천21원이 드는 생산비는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동화시설이 완벽하다 해도 사람의 손과 공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그저 값싸게 수입해다 먹는 것이 현명한 방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광대한 농토도, 기계화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바로 쌀농사 포기라는 자책이기도 하다.

이런 마당에 식량안보 어찌고 저찌고 하는 말은 사치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국방을 남의 나라 용병에게 맡길 수 없듯, 우리의

먹거리를 남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생각만은 접어야 한다. 그래도 우리가 먹는 쌀은 우리 것이 최고요, 터전을 지켜주는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 땅에서 쌀이 사라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농업인들이 그토록 힘든 쌀에 처절하도록 미련을 갖는 것은 철학 때문이다. 자라는 동안 내내 더워야 하는 식물을 춥고 서늘함이 존재하는 지방에서 재배하려면 대응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륙성 기후 권역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한 재료로서 쌀만한 것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쌀은 바로 우리 기후대에 가장 적합한 곡종이다. 땀이 들어가고 정성이 배어있는 이 쌀은 바로 자식과도 같은 애정이 깃든 물질이다. 이 끈끈한 정이 경제논리에 의해 박탈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밖에 달리 할말이 없다.

배가 고팠던 우리가 가장 선망해왔던 것은 “개장국에 흰 쌀밥 좀 말아먹었으면……”이었다. 흥부와 그의 일가족이 웅변해 주듯 우리 의식주의 이상적 경지는 고깃국에 쌀밥 먹고 비단옷에 기와집에서 사는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북한 김일성의 연두사가 ‘이 밥에 고깃국을 마음껏 먹여주겠다’는 수식으로 장식되었겠는가. 절량농가들이 양산되어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절이면 나라의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일이다. 우리에게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 그 자체였다. 왕년의 이탈리아 명화 「쓰디쓴 쌀」에서 선의를 행하다 죽은 여주인공 ‘실바나 망가노’의 시체에 뿌려졌던 쌀은 그녀 생의 마지막 선물로서 더 이상 비할 데 없는 값진 사랑이었다.

기피하는 쌀에서 선호하는 쌀로

쌀의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 해낼 필요는 없다. 단순히 배를 불리는 정도를 넘어 영양이나 대사 기능적 물질로서의 쌀은 그 어느 곡종에 비유할 바가 아니다. 쌀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다양한 대사물을 포함하여 밝혀지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함유되어 있다. 요즈음 광우병이다, 조류인플루엔자다 하면서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다기능적 식품인 쌀이야말로 소비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라는 데 이의를 달기 힘들다.

비료 덜 주고 농약을 치지 않은 쌀을 선호하는 것이 작금의 추세가 되고 있다. 소위 유기미라 해서 몇 안 되는 품종을 가지고 포장방식과 상표, 재배지역을 다르게 하여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품질의 쌀을 고르기가 그리 쉽지 않은 단점은 있다. 그러나 어느 종류의 쌀이건 찌눈(배)이 달린 현미는 너무나 완벽한 식품이다. 비록 배유 내에 잔류농약이 함유되어있다 해도 배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 배가 배유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농약성분을 거의 중화시켜버린다. 쌀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 이요 강점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시중에는 키토산 쌀이니, 혹은 -5℃ 냉각이온 쌀이니 하는 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저피틴 산 계통의 쌀도 곧 선을 보일 것이고 저단백질, 고비타민E, 저당질 등 기능성 계통의 벼가 재배안정성과 균일성 시험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쌀들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올 날도 그리 멀지 않다.

영양덩어리인 고귀한 쌀을 소비하는데 단순히 세 끼 먹는 식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곤란하다. 쌀을 소재로 한 다양한 먹거리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쉽게 안전하게 소비자의 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유통망이 갖춰져야만 기능화 된 쌀 소비촉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의정보**

